



임동성당 사제 서품식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27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 임동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가졌다. 이날 서품식에서는 장욱중(안토니오), 정경륜(대건안드레아), 정규현(시몬) 등 6명이 사제 서품을 받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지방선거, 지역 갈라놓는다

### 나주시의회 예산싸움 주민까지 반목 순천 정원박람회 타당성 논란 가열 전남 동·서부 지역이기 투표 조짐

지방선거가 지역을 둘로 갈라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 특정시안을 빌미로 주민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입자들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의 과열음이 두드러지게 터져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나주와 순천이다. 전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역출신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이기 현상'도 되풀이 되고 있다.

나주의 경우 지난해 말 시의회가 처리한 '2010 예산안 및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삭감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의회 내 민주당(8명)과 무소속(6명) 의원으로 갈린 대립은 회기

를 4차례나 연장하면서까지 지루하게 계속됐고 최근 시민단체까지 개입하면서 반목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나주농민회 등 나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예산삭감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갖고 삭감에산을 원상복귀하고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끼리 충돌도 빚어졌다.

나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집행부가 편성한 2010년 본예산(3천973억9천200만원)과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예산의 경우 2.2%(86억8천388만9천원), 추경안은 5천330억의 1.3%(68억5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농업·

임업·투자유치 등 주민숙원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무차별적으로 깎아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의원들과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 편성 및 불필요한 예산 등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규탄대회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다른 '속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 관련된 인사들의 선거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주시측도 예산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간 반목과 대립은 더

심각하다. 순천도 비슷하다. 순천시의 역점사업인 선거 입지자와 주민들 사이에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열악한 재정을 거덜나게 할 것이라는 견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지지세력간 입장에 따라 누적되고 재차 발화, 지역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은 "갈등과 대립이 전 주민이 가담하는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끝없이 지속될 경우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北, NLL해상 두차례 포사격

### 해안포 90여발 발사...軍, 벌컨포 경고사격

북한이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북한한계선(NLL)의 북한쪽 해상 2곳으로 최대 9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도 한차례 경고사격을 가했다. <관련 기사 3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서해상에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훈련을 했으며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55분부터 10시16분까지 해안포 30여 발을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탄착 지점은 전남 북한이 선포한 2곳의 항행금지구역내이며 NLL로부터 북한해상 1.5마일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또 오후 3시25분께 수십 발



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북한이 오전에 포사격 당시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북한쪽 해상에서 각각 20~30여개의 물기둥이 관측됐으며, 오후에도 20~30여개의 물기둥이 식별되어 최소 60여발에서 최대 90여발 이상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도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사거리 3~4km의 벌컨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의 포사격 당시 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은 없었으며 현재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27분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류제승 육군소장 명의의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에 게 경고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정경길 대통령실장에게 긴급 안보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 실장 주재로 김태영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관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 '세종시 수정안' 환매권 제한 위험 논란

### 입법예고 갈등 전방위 확산 조짐

정부가 세종시 관원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면서 여여 간, 여여 간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더욱이 개정안에 포함된 토지 환매(還買) 청구권 제한에 대해 위험 논란이 일고 있어 정치권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이다. <관련 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오전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20일 동안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친박계 박종근 의원은 "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친이계인 장관급 사무총장은 "입법예고는 정부 발의에 앞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인데, 밀

어붙이기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민주당은 정 총리가 공무원까지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에서 부결될 게 뻔하다며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매권 제한에 대한 위험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세종시 부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토지환매 청구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밖에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환매권을 제한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법·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환매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대학선택도 전략이다

### 자기개발 전략파트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010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2010. 1. 30(토) ~ 2. 6(토)

- 국가인재 DB 등재인물 출신대학 4위
- 고위공무원 출신대학 5위

평주 전담 지역 대학 062)973-51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